

#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단계와 발전전략\*

- ‘원북원부산운동’을 중심으로 -

## The Present Stage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One Book, One City’ Campaign: A Case Study of ‘One Book One Busan’ Project

이 용 재(Yong-Jae Lee)\*\*

### < 목 차 >

I. 들어가며	4. 홍보 측면
II. ‘한 책, 한 도시’운동의 현단계	IV. ‘한 책, 한 도시’운동의 발전전략
1. ‘한 책, 한 도시’운동의 이론적 배경	1. 독서토론의 활성화와 토론도움자료의 제작
2. 원북원부산운동의 과거와 현재	2.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과 ‘한 책’운동의 연계
III. 원북원부산운동의 특성과 평가	3. 지역기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계
1. 기획 측면	V. 나오며
2. 도서선정 측면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초 록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은 금세기 공공도서관에서 시도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단계를 점검하고 이 운동이 정착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부산에서 5년째 시도되고 있는 ‘원북원부산’ 운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이 운동의 현상과 전개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의 결과, 원북원부산운동은 한국의 대도시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시민들에게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현재 공공도서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내고는 있으나, 기획·도서선정·프로그램 운영·홍보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 적합한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발전전략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독서진흥, 원북원부산운동

### ABSTRACT

‘One Book One City’ project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reading promotion campaign conducted by public libraries in this ag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resent stage of this campaign in Korea, and to suggest the actual plans to make this campaign successful. To look into deep context and process of this campaign in Korea, I did a case study for ‘One Book One Busan’ project. After analyzing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project, I suggested th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One Book One City’ campaigns in Korea.

Keywords: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Public Libraries, Small Libraries, Reading Program, Cultural Program, Reading Promotion, One Book One Busan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lyj5384@pusan.ac.kr)

· 접수일: 2008년 8월 25일 · 최초심사일: 2008년 8월 26일 · 최종심사일: 2008년 9월 22일

## I. 들어가며

오늘날 국내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는 독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있다.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독서운동(이하 '한 책' 운동)은 그러한 독서운동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책' 운동은 1998년 미국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지역사회 대중 독서운동으로서 지난 십 년 동안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많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북돋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금세기 공공도서관이 주창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이자 '혁신'으로서 크게 평가받게 되었다.<sup>1)</sup>

국내에서는 '한 책' 운동이 2003년도에 시작되어 2008년 현재까지 여러 도시에서 시도되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 2003년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이 운동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충남 서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또한 같은 해 순천에서도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순천시 평생학습도시 연계사업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였다. 이어 2004년에는 부산에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씬지도서관 등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서울, 원주, 익산 등에서도 시범적인 사업을 진행하였다. 2005년에는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6개 도시 모두에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였다.<sup>2)</sup> 2008년 현재 이상의 도시들 외에 청주, 포항, 여수, 서귀포, 대전, 김해, 김천, 영주, 영양 등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한 책' 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고, 이 운동을 출범시킨 각 도시 또는 지역에서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제 국내 '한 책' 운동에 대한 실험이 5년을 넘어 진행되고 있기에 이 운동에 대한 점검과 국내 독서환경에 맞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에서 '한 책' 운동에 대한 학술적 연구로는 윤정옥의 일련의 연구물이 대표적이다.<sup>3)</sup> 특히 윤정옥은 최근 논문을 통하여 청주에서 전개된 '한 책'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적합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sup>4)</sup> 나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 '한 책' 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sup>5)</sup> 또한 조미아는 사서의 입장에서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

1) 윤정옥, "미국 대학의 "한 책" 독서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8. 6), p.86.

2)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2007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7), p.330.

3)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 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9), pp.45-66; 윤정옥,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5. 9), pp.27-44;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3), pp.5-32.

4)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적 과제 : "책 읽는 청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08. 3), pp. 63-81.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한 책’ 운동 및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운동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sup>6)</sup>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한 책’ 운동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산에서 전개되고 있는 ‘원북원부산(One Book, One Busan)’ 독서운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부산의 ‘한 책’ 운동을 집중적인 사례로 잡은 이유는 무엇보다 내가 이 운동에 수년간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세히 관찰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한 보고이자 연구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관찰하는 질적 연구이며, 연구기간은 2005년 3월 이후 2008년 9월까지이다. 나는 수년간에 걸친 부산시에서의 ‘한 책’ 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진단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 이 운동이 성공리에 정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국내의 다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 ‘한 책’ 운동의 발전을 한 단계 심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 II.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단계

### 1.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이론적 배경

주지하다시피 ‘한 책’ 운동은 “한 도시에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읽고 토론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개하는 독서캠페인”이며 “사람들이 ‘한 책’ 읽기와 토론을 통하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착상에 근거하고 있다.<sup>7)</sup>

‘한 책’ 운동은 1998년에 미국 시애틀에서 시애틀 공공도서관(The Seattle Public Library)의 워싱턴도서센터(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가 주관한 ‘만약 시애틀 온 시민들이 책 한 권을 같이 읽는다면... (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 ...)’라는 프로젝트로부터 비롯되었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도서센터와 연합하는 50개 주(州) 도서센터들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도서센터는 1989년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독서토론과 문학 및 인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독자의 세계를

5) 이용재, “부산북스타트의 전개양상과 발전 방안 : 국내의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지평과 관련하여,” 한국민족문화, 제25집(2005. 4), pp.429-460; 이용재, “한국 독서운동의 현단계와 전망 :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제17권, 제1호(2006. 6), pp.5-25; 이용재·황은주, “우리나라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황과 전망,”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7호(2006. 8), pp.37-46.

6) 조미아, “한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대한 고찰 :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중심으로,” 도서관, 제62권, 제2호(2007. 12), pp.78-113.

7) The Center for the Book, Library of Congress Home page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ublic Programs Office guide, *One Book One Community : Planning Your Community-Wide Reading* 2003. [cited 2008. 8. 25].

확장시키는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감상력을 넓고 깊게 만들고자 노력한다.<sup>8)</sup>

그 후 2001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개된 독서캠페인 ‘한 책, 하나의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로 인하여 이 운동은 ‘한 책, 한 도시’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미국 의회도서관 도서센터의 ‘한 책 운동(One Book Reading Promotion)’ 웹사이트에는 2003년 5월 미국 38개주에서 9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2004년 5월에는 49개주, 239개 프로젝트, 2005년 5월에는 316개 프로젝트, 2007년 1월에는 미국 50개주 전체에서 모두 400여개 프로젝트가 등록되었다.<sup>9)</sup> 2008년 올해에도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도시가 계속 ‘한 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1년 시카고시의 “One Book, One Chicago”에서 처음 ‘한 책’으로 선정되었던 하퍼 리(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 Bird)』는 2008년 1월 현재까지 무려 71개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에서 ‘한 책’으로 선정되어 읽히고 있다.<sup>10)</sup>

한편 캐나다의 경우 전국적 차원에서 ‘한 책’을 함께 읽는 독서캠페인, ‘캐나다가 읽는다(Canada Reads)’를 200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앨버타, 밴쿠버, 옐로우나이프, 워털루 등에서 ‘한 책’ 운동을 도시와 지역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브리스번, 영국의 브리스톨과 스티븐에지 등에서도 ‘한 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sup>11)</sup>

국내의 경우는 여러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이후 2008년 현재 순천, 부산, 서울, 원주, 익산, 청주, 포항, 여수, 서귀포, 대전, 김해 등 여러 도시에서 ‘한 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도시 및 지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한 책’ 운동의 취지와 장점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운동의 ‘취지’ 또는 ‘원리’를 다시 정리한다면, 한 도시(또는 특정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즐겁고으로써 사람들의 독서활동을 진작하고, 나아가 현대 사회와 지역 사회에서의 개인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어떤 지혜나 해법을 얻기 위한 것이다. 주로 문학작품을 통하여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립하고 투쟁하기 보다는 일종의 정화(카타르시스) 효과에 의해 특정 이슈나 일상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이러한 독서운동이 추구하는 바이다.

특히 “왜 ‘한 책’을 정하여 운동을 펼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다. 즉, ‘한 책’을 정하는 과정(시민들과 선정위원회의 선정 및 투표 과정) 자체가 토론이며, 그러한

8) Washington Center for the Book at Seattle Public Library,  
<[http://www.spl.org/default.asp?pageID=about\\_leaders\\_washingtoncenter](http://www.spl.org/default.asp?pageID=about_leaders_washingtoncenter)> [cited 2008. 8. 25].

9) 윤정옥(2007), 전계논문, p.7.

10) 윤정옥(2008), 전계논문, p.64.

11)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country.php>> [cited 2008. 9. 11]

과정을 거쳐 ‘한 책’이 선정되면 그 책이 하나의 상징이 되어 인지효과를 주고 그 책이 품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또한 ‘한 책’을 쓴 저자의 다른 책들이나 ‘한 책’의 테마와 관련된 다른 책들도 읽을 수가 있다.

‘한 책’ 운동의 장점 중 가장 큰 것은 이 운동을 주도하는 기관이 주로 ‘공공도서관’이라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국내외 여러 나라들에서 주로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매년(또는 일 년에 두 번) 전개되는 이 운동은 역사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서들의 기획에 의해 대부분 전개되어 운동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반면 공공도서관과 사서들에게는 ‘한 책’ 운동이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파고드는 매우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다.

끝으로 ‘한 책’ 운동이 품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운동은 읽고 쓰는 능력과 독서력이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독서에 입문하는 사람, 독서와 무관하게 살거나 외면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남녀노소를 아우르면서 지역공동체문화를 일구고자 한다. 또한 현대의 디지털노마드 세대까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소통을 도모하면서도 ‘한 책’ 운동의 근저에는 “다시 책으로”라는 메시지가 깔려있는 것이다.

## 2. 원북원부산운동의 과거와 현재

‘원북원부산운동’ 운동은 부산에서 시도되고 진행되고 있는 ‘한 책’ 운동이다. 2004년에 시작되어, 올해는 5년째이다. 초창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부산시청의 예산을 받아 시작하여 관주도의 성격이 강하였다. 2005년에는 민간에서 참여하여 원북원부산운동추진위원회(현 원북원부산운영위원회)가 함께 이 운동을 이끌었다.<sup>12)</sup>

2006년부터는 그 간의 역사와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이 선두에 나서서 원북원부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을 대표로 하는 부산의 공공도서관들이 협력하여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들은 적극 참여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구 소속) 공공도서관들은 다소 미온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내가 2008년 원북 선정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이 예전보다 많이 참석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 운동이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공공도서관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12) 나는 2005년부터 ‘원북원부산(One Book, One Busan) 운동’에 원북원부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2005년에는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사서들 및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도움자료(discussion toolbox)를 만들어 공공도서관에 제공하고, 낭독회·사진전·음악회 등을 주최하기도 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원북원부산운동을 위해 매년 원북 선정작업, 작가와의 만남 행사 참여, 토론회 개최, 온라인 카페 운영, 독후감 시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의 승인을 받아 전국 차원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아우르는 공식도메인 <<http://www.onebook.or.kr>>을 개설하였다.

편, 원북원부산운동에 대한 시민들 사이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의 공공도서관이 집계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한 책(One Book)’을 뽑기 위한 투표에 참여한 시민의 수가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1만명을 넘지 못하였으나 2006년의 경우 약 4만 2천명, 2007년도의 경우 약 7만 2천명, 2008년도의 경우 약 11만 3천명으로 집계되어,<sup>13)</sup> 원북원부산운동이 점차 부산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그 동안의 원북원부산운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원북원부산운동’ 운동은 ‘부산북스타트운동(Busan Book Start)’<sup>14)</sup> 운동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초창기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이 운동을 시작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부산의 공공도서관이 이 운동을 주도하는 구도로 나아가고 있다.

2004년도의 경우, 온라인투표를 통하여 부산의 ‘한 책’으로 김중미 작가의 『팽이부리말 아이들』이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한 책’을 정본과 핸드북으로 나누어 인쇄하여 부산시내 공공도서관 및 찜지도서관,<sup>15)</sup> 종합병원 내 병동, 장애인협회, 독서회모임 등을 통해 무료로 배부하였다. 도서선정은 공공도서관 및 전문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 추천도서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온라인투표를 통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북크로싱(book crossing)운동, 도서교환전 등을 통하여 도서의 돌려읽기를 권장하는 한편, 작가초청 강연회, 학부모·학생 대상 독서캠프, 시민 독서감상문 발표대회 등을 추진하였다.

2005년도에 들어 원북원부산운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관 협력모델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즉, 지역의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교사 및 학부모회는 물론 한국도서관협회, 책읽는사회국민운동 등의 관련 전문단체와 민간전문가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자문을 하였다. ‘한 책’의 선정 과정은 각 공공도서관이 후보도서 10권씩을 추천하고 선정위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한 독서단체의 권장도서목록을 참조하여 1차적으로 10권을 선정하고, 약 한달 간 진행된 각종 기관 홈페이지 상의 사이버투표를 통하여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한 권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5월 17일 부산의 ‘한 책’으로 『사람풍경』이 선정되었다. 이어 원북원부산운동 전개 심포지움 개최, 공공도서관 및 찜지도서관, 대학 및 학교에서의 독서회 진행, 도서배포 및

13)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원북원부산추진현황」(대외문서, 2008. 1. 18).

14) 부산북스타트운동은 부산시민의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평생교육 차원의 독서진작 캠페인이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책읽는 학교’ 홈페이지(<http://reading.pen.go.kr/>) 이수진, 한국 북스타트 운동에 관한 연구 : ‘부산 북스타트 운동’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4) 참조.

15) ‘찜지도서관’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범국민독서운동본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작은 규모의 독서공간이다. 최근에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인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영 의지가 강한 곳에 설치하고 있다. 찜지도서관은 병원, 시청, 동사무소, 복지관, 시민단체 건물 등에서 설치되어 도서 1천권 정도와 약간의 컴퓨터 등을 갖추고 있다. 2004년에 부산대학교병원 내에 1호점이 설립된 이후 계속 설립되어 2007년에 사상구 엄궁동 주민자치센터에 27호점이 설립되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책읽는 학교’ 홈페이지, <<http://reading.pen.go.kr/>> [인용 2008. 8. 25]

작가사인회 실시, 범국민독서운동본부의 독서릴레이 사이트에 ‘원북원부산’ 코너 개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원북원부산 카페<sup>16)</sup> 개설, 원북원부산 로고 ‘책갈매기’ 제작, 작가와의 만남 행사 개최, 독후감 공모, ‘토론도움자료(discussion toolbox)’의 제작과 보급, 사진전 및 순회전시회, 낭독회, 부대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나는 사서, 사서교사, 독서치료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도움 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공공도서관에 배포하였으며, 독서풍경을 테마로 하는 사진전, ‘한 책’ 『사람 풍경』의 낭독회, 음악공연 등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원북원부산운동은 본격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 동안 다소 미온적이었던 공공도서관이 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 전면에 나섰다. 특히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이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공공도서관 및 각종 기관에서 1차 추천된 100권 중에서 운영위원장, 사서, 교사, 독서회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후보도서 10권을 선정하였다. 이어 이러한 10권을 대상으로 시민투표 작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시민투표는 2005년까지는 온라인투표로만 시행되었으나, 2006년에는 가두홍보와 각종 기관에서의 홍보를 동시에 시행하여 현실공간 및 길거리 투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즉, 도서관, 공공기관, 서점, 대학 등에 스티커 투표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홍보결과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 2006년 부산의 ‘한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5월 1일 원북선포식과 작가초청강연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5월에서 8월까지 원북 선정투표에 참여한 시민 중 선정된 500명을 출발주자로 하여 시민독서릴레이가 진행되었다. 또한 7월부터 12월까지 각 도서관별로 10명 내외의 사람들로 구성된 원북독서클럽 20여개가 결성되어 독서토론활동을 하였다. 부산의 공공도서관들은 부산에서 10월에 개최된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원북원부산운동 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하고, 이와 함께 작가를 초청하여 시민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독후감 공모를 7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였는데 3천2백여 편의 응모가 있었다.

특히 12월 5일에는 2006년 한해의 원북원부산 운동을 정리하여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토론하고자, 원북원부산연합독서토론회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교육감 및 시민들 약 2백명이 참석하였는데, 1부는 사례발표(원북원부산 독서토론회 사례 2건<sup>17)</sup>, 원북원부산 운영담당자(사서), 공공도서관장, 대학생 자원봉사자 발표)로 진행되었고 2부는 전문가토론(교사, 문헌정보학 교수,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원북원부산운영위원장)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부산의 ‘한 책’ 운동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향후 발전을 위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2007년의 원북원부산운동은 그 동안의 상승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들이 주도하였다.

16) <<http://cafe.daum.net/onebookbusan>>

17)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독서클럽 ‘한올타리 독서회’, 연산도서관 독서클럽 ‘꽃다지 독서회’

1월에 1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에 1차 운영위원회 개최로 원북 후보작 10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사이버투표 및 현장투표를 실시하였다. 71,760명이 투표를 참여하여 17,241표(전체득표 중 24.03%)를 획득한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가 ‘한 책’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4~8월에 걸쳐서 원북 선정 투표 참여자 7만여 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인을 출발주자로 하여 독서릴레이가 전개되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원북 독서토론회와 공공도서관별로 원북 독서클럽이 결성되어 운영되었다. 공공도서관에서의 원북 독서회는 월 2회 진행되었다. 6월에는 2007년 원북과 함께하는 선상문학체험 행사를 열어 부산 해운대 앞바다의 테즈락크루즈 유람선상에서 저자와의 만남,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유학설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250명이 참여하였다. 9월에는 도서교환전을 개최하여 가정에서 가져온 책을 시민들 사이에 교환하는 행사를 하고 시민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0월에는 부산평생학습축제장에 원북원부산 운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여러 프로그램에서 시민 약 5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12월에는 각 도서관 독서토론 클럽 및 학교 독서 토론회의 연합독서토론 행사를 개최하였다.

원북원부산운동이 시작된 지 5년째인 2008년 올해는 공공도서관 주도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매년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8년 1월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공공도서관 사서, 일선 교사, 문학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각계에서 추천한 90여종의 도서 중 후보도서 10종을 선정하였다. 원북원부산운동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참석이 늘어난 것은 이 운동의 필요성과 지속적 발전에 대해 소속을 막론하고 공공도서관계의 인식이 점차 공유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시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도서선정 투표는 온라인투표와 병행하여 구청, 시내 3개 대형서점, 대학캠퍼스, 공공도서관 등 30여 군데 투표소에서 현장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11만 3천여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지난 4년간의 참여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시민의 인지도가 확인되었다. 10종의 후보도서 중에서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 31.25%를 득표하여 부산의 ‘한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4월 1일 교육청에서 ‘원북 선포식’이 작가와 원북원부산운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후 원북 도서 3,000여부를 제작·배부하여, 시민들에게 원북을 널리 홍보하고, 또한 동시에 300명의 출발주자로 구성된 원북독서릴레이가 전개되었다. 5월에는 각 공공도서관의 원북독서클럽 및 동아리를 결성하여 원북토론회가 진행되었다. 5월 27일에는 원북 저자강연회 및 저자 사인회가 열렸다.

7~8월에는 원북원부산 독후감을 공모하고, 가을에 열리는 평생학습축제에서 작가와의 만남, 독후감 시상 등이 계획되어 있다. 2008년의 남은 기간 동안 작가와 함께하는 선상문학체험행사, 가을 산 등산로에서의 홍보, 대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원북원부산운동 관련 전시회, 사진전 등 다양한



이벤트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올해까지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들이 중심이 되어 협력하고 이 운동을 주도하는 양상은 여전하다. 일례로 8월에 원북원부산 독후감 공모 행사가 진행중인데 교육청 산하 11개 공공도서관들의 홈페이지에서는 교육청 산하임을 표기하여 독후감 공모를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원북원부산운동 및 독후감 공모에 대한 안내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

### Ⅲ. 원북원부산운동의 특성과 평가

#### 1. 기획 측면

부산의 ‘한 책’ 운동은 현재까지 관주도로 기획되고 주로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독서운동이 전개되는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장점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단점이기도 하다. 장점으로서는, 관(부산시청, 부산시교육청)에서 독서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펼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점, 교육청 및 공공도서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 기관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공적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독서의 시장논리를 막을 수 있고, 공공도서관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독서활동을 진작하고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 책’ 운동이 시작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공공도서관의 주도함으로써 이 운동의 공공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북원부산운동이 부산의 공공도서관의 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이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타를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점을 말한다면, ‘한 책’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공자(교육청 및 도서관)의 입장이 두드러져 시민들은 다소 수동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교육청이나 대표도서관의 주도적 역할 및 지시에 대해 일선 사서, 교사, 학부모, 기타 협력자 등 ‘한 책’ 참여자들이 이러한 독서캠페인을 또 하나의 성가신 ‘일’로 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원북원부산운동의 기획단계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원북원부산운동이 추구하는 바는 현재까지 교육청과 도서관의 정책성 슬로건에서 표현되고 있다. 즉, “부산시민에게 권장할 만한 한편의 교양도서를 선정·배부하고 독후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토론문화 형성과 지역회합을 도모하는 독서생활화운동”임이 원북원부산운

등의 전개과정에서 각종 문서와 웹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문구에서 보듯, '토론 문화 형성 및 지역화합 도모'라는 다소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슬로건이 '한 책' 운동의 시민사회 저변의 공감대를 확보하려면, "왜 '한 책' 운동이 필요한가?", "원북원부산운동을 통하여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부산이 가진 문제들은 무엇이며 지역사회의 건강성과 발전을 위해 '한 책' 운동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원북원부산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 '한 책' 운동의 기획단계부터 시민사회의 참여와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토론과정에서 공공도서관과 사서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성숙한 시민사회의 독서인프라로 정립되어 있으며 또한 '한 책'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수준으로 가기 위해 공공도서관 및 사서들의 배가의 노력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공공도서관 인력(사서) 위주의 운영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교사, 문학인, 시민단체, 언론인 등을 포함하여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운영위원회는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선정위원회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 교사, 문학인,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나아가 도서선정 단계에서 동시다발적이고 단계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토론이 일어나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각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회를 통하여 도서추천과 관련하여 난상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한 책'의 후보도서 추천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추천과 토론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 2. 도서선정 측면

원북원부산운동의 도서선정 과정은 시민들과 사서들의 온·오프 라인 추천을 거쳐 1백권 내외의 1차 후보도서들을 선정한 뒤, 주로 사서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토론하여 각자 추천을 하고 다수 득표를 한 도서순으로 2차 후보도서 10권을 정한다. 여기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1차 후보도서들에 대해 선정위원들이 미리(최소한 10일 이상) 알고, 원북원부산운동 사이트<sup>18)</sup>를 통하여 각자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19)</sup> 올해까지의 부산의 '한 책' 목록은 <표 1>과 같다.

18) 현재까지 원북원부산운동의 공식 홈페이지는 없다. 다만, 2005년부터 개설된 포털사이트 Daum의 원북원부산운동 카페 <<http://cafe.daum.net/onebookbusan>>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19) 원북원부산운영위원회가 2005년 이후 제시한 부산의 '한 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남녀노소가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 ② 사람들이 원북(One Book)을 통하여 토론하기 좋은 책, ③ 작가와의 만남, 심포지움, 토론회(인터넷 북카페 포함), 도서관문화프로그램, 낭독회, 공연, 사진전, 연극, 영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기에 적합한 책, ④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 ⑤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책, ⑥ 부산의 문화, 정서, 역사 등을 느낄 수 있으면 좋으나 필수적인 사항은 아님, ⑦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다시 책을 읽

〈표 1〉 부산 ‘한 책’ 운동의 연도별 선정도서

연 도	선정도서	작 가	출판연도
2004	팽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2001
2005	사람풍경	김형경	2004
2006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2005
2007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김현근	2006
2008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박경철	2005

이러한 선정도서들이 원북원부산운동의 모든 도서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2004년 도서의 경우는 어린이, 2007년의 경우는 청소년, 2005년, 2006년, 2008년 도서의 경우는 성인이 주된 독자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도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특정 도서가 성인용과 동시에 어린이용으로 출판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하는 데 유리하다. 때문에 국내 다른 도시들은 어린이책을 선정함으로써 부모 등 성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도 한다. 부산의 경우는 성인용 도서가 주로 선택되었는데, 이러한 도서들은 “성인이 가지는(성인에게 잠재된) 마음의 상처(『사람풍경』)”, “사형수 이야기(『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의사의 눈으로 본 환자들 이야기(『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등과 같이 토론하고 성찰하기에 적합한 심각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다. 그러므로 부산의 선정도서들은 ‘한 책’ 운동의 핵심적 요소인 ‘토론하기 좋은 책’이라는 기준에는 상당수 부합하였다. 다만, 이러한 도서들에 대해서는 독자층이 한정되어 있어 광범위한 독자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만약 ‘광범위한 사람들의 가시적 참여’와 ‘소수 독자층의 진지한 독서토론’이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안(독서운동 방식)을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나는 후자의 경우를 택하고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표 1〉에서 보듯, 부산의 선정도서들은 모두 2000년 이후 출판된 책으로 시의성을 제공하는 책들이다. 또한 연도별로 보면 해당 연도의 직전 해에 출판된 책이 대부분 선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의 경우도 당시 한창 유행이던 모 방송사의 독서캠페인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도서이기에, 도서선정에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방송 등에서 알려진 베스트셀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부산의 선정도서들은 소설에 국한되지 않고 비소설(에세이 등)도 선정되어 영역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부산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지역의 이슈와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향후 원북원부산운동에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고, 느끼고, 향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⑧ 가급적 최근에 발간되어 감동과 함께 시의성도 있는 작품, ⑨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목록 참조, ⑩ 역사와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 시민단체의 도서목록 참조

###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원북원부산운동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프로그램의 형태나 질 또한 진화하고 있는 형국이나 아직은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주로 작가와의 만남 및 사인회, 원북독서회의 조직 및 독서릴레이 가동, 독후감 공모 및 시상 등 관 주도의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왔다. 다만 2005년의 경우 '독서토론 자료' 제작 및 배포, 원북 낭독회, 독서풍경 사진전, 부대 음악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시도되고 진행되었으나 이후에는 선상문학행사 등과 같은 일부 프로그램 외에는 독서를 다양한 문화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되거나 시도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LA 지침(2003)에서는 '한 책' 운동의 성공은 창의적이고 사고를 촉발하는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한 책' 프로그램의 범주를 크게 독서토론회, 학술강연, 저자초청 행사, 전시회, 예술 프로그램,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sup>20)</sup>

국내에서도 다른 도시들의 경우 낭독회, 전시회, 영화상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연계하여 전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서산의 경우 그림전시회, 연극비디오 상연, 독서퀴즈, 독서릴레이, 백일장, 평가워크숍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를 통하여 독서토론회, 작가와의 대화, 워크북 제작, 독서토론 훈련, 전시회 및 영화상영회, 각종 공모전, 책 만들기, 독서퀴즈대회, 독서릴레이, 각종 공연, 낭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순천, 원주, 익산, 청주 등 다른 도시의 경우에도 시, 시민단체, 문화단체, 방송국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sup>21)</sup>

이처럼 국내외 '한 책' 운동의 프로그램들과 비교하여 보면, 원북원부산운동은 프로그램의 참신한 기획과 개발, 도시 전역에서의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의 연계, 여러 관련 기관 및 조직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4. 홍보 측면

원북원부산운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현재까지의 홍보 활동은 교육청과 공공도서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의하달식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청 강당에서의 원북선포식, 교육청 및 공공도서관의 언론 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

20) <<http://www.ala.org/ala/ppo/files/onebookguide.pdf>> [cited 2008. 8. 20]

21) 윤정옥(2007), 상계논문, pp.24-26.;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2007 한국도서관연감, pp.330-342.

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한 도서선정 투표, 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관계자들(교육감, 관장, 사서 등)의 가두홍보 및 길거리투표 유도, 공공도서관 및 대학, 교육청에서 포스터를 통한 홍보 등 관 주도의 홍보방식이 견지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여 독서진흥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 폄하될 수는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과 척박한 독서환경을 고려할 때 교육청과 공공도서관에서 이러한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시민들의 독서 및 토론문화가 일상화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한 책’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이 운동의 정착점은 시민들의 자발적 독서와 토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문화의 향유 등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에서도 일상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외부 벽면, 정문, 로비, 세미나실, 강당, 자료실, 식당 중 적절한 공간을 택하여 연중 홍보를 시도하는 것, 도서관 홈페이지에 ‘한 책’ 운동을 알리는 배너 게시, 이동도서관(차량)에 광고 부착, 기차역·지하철역·버스정류소 등 대중의 이동이 빈번한 공공장소에 공익광고의 일부로 공지하는 방법 등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보면 교육청 전속방송 및 일반 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시도하고 있으나, 일반인이나 독서인구에 널리 알려지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부산의 경우, 초창기부터 모 신문사가 이 운동에 관여하고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이것은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유력 일간지가 파트너로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은 바람직하였지만, 때문에 지역의 다른 언론(타 신문사 및 방송사)은 이 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청주의 사례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sup>22)</sup>

그러므로 향후 원북원부산운동을 한 단계 높이거나 정착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북원부산운동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러한 홈페이지를 소속을 막론하고 부산의 모든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청 및 교육청은 물론 이 운동에 연관될 수 있는 각종 언론사, 시민단체, 문화단체, 교육기관, 각종 독서회의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알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한 책’ 운동 공식 웹사이트<sup>23)</sup>를 통하여, ‘한 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타 도시들과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

또한 시 전역에서 일 년 동안 펼쳐지는 각종 축제, 문화행사, 예술행사 등과 연계하여 이 운동을 알리는 것도 요망된다. 예컨대 부산에서 펼쳐지는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연극제, 자갈치축제, 평생학습축제 등과 연관을 맺도록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 지역 언론 중 특히 방송사가 협력 파트너로 등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방송(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독서를 보고 듣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경험할 수 있다.

22) 윤정옥(2008), 전계논문, p.76.

23) <<http://www.onebook.or.kr>> 이 사이트는 한국도서관협회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 부산의 문화컨설팅회사인 (주)코아섬이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기업과의 협력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원북원부산운동에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한 은행이 교육청 주도의 BBS(부산북스타트운동)에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러 기업들과 연계하여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전략을 공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IV.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발전전략

### 1. 독서토론의 활성화와 토론도움자료의 제작

국내에서 2003년 이후 ‘한 책’ 운동이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따라 여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운동을 시도하고 해를 거듭하여 진행하고 있는 각 도시는 열악한 독서환경에서도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독서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나는 선행연구에서 국내에서의 도시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한 책’ 운동을 운영주체별로도 구분하고 그 장단점에 대해 진단한 바 있다.<sup>24)</sup> 현재까지의 양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도서관,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자 차원에서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편이다. 달리 말하여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이 운동에 대해 알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독서활동을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국내에서 약 5년 간 진행되고 있는 ‘한 책’ 운동이 차원을 달리하여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운동의 본질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독서토론’의 활성화이다. ‘한 책’ 운동이 추구하는 것은 한 도시 또는 지역사회에서 한 책 읽기를 통하여 사람들의 독서, 토론, 성찰, 문제점 인식 및 해결인 것이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회적·법적으로 이슈를 해결한다기보다 문학을 통한 성찰과 승화를 의미한다.

한편 미국 ‘한 책’ 운동의 경우, 1998년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을 때나, 2001년 시카고에서 “One Book, One Chicago”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미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한 책’ 운동이 진행될 때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던 것은 다양한 삶의 경험과 상이한 관심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한 권의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sup>25)</sup> 이처럼 북미의 ‘한 책’ 운동에서는 토론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도발적 토론(provocative discussion)’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잠재적·현재적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 도발적일 정도로 문제를 정면에 꺼내놓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24) 이용재·황은주, 전계논문, pp.42-43.

25) 윤정옥(2004), 전계논문, pp.47-61.

같이 문학 작품을 통하여 토론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하면서도 카타르시스 과정을 거쳐 성찰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서구 사회와 달리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토론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조미아는 “우리나라의 경우 ‘작가초청회’, ‘독서감상문 모집’, ‘독서퀴즈’, ‘영화 상영’ 등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나 ‘독서토론’은 그다지 활발한 편이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토론이 대중화되지 않은 문화이므로 사람들에게 독서토론 논제를 제시하는 워크북을 제공하여 토론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용과 일반용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제작한 워크북이 필수적이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토론 기법의 강연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sup>26)</sup>라고 말한다.

원북원부산운동의 경우에서도 독서토론의 활성화는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관건이 되고 있다. 즉, 초창기에는 교육청이, 최근 수년간은 공공도서관이 작가와의 만남, 독후감 공모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치며 독서운동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일상화된 독서토론 문화의 조성은 요원하게 보인다. 특히 토론도움자료의 제작이 2005년도에 이루어지고 지난 2년간 제작되지 않았기에 독서토론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공공도서관의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내가 원북원부산운동에 참여관찰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토론’이라고 하면 거북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참여한 2005년 토론도움자료의 제작과정에서는 제작팀의 협의를 통하여 자료집 속에 질문들(토론꺼리)을 제시하지 않고 대신 책에서 뽑은 작가의 표현 중 인상적인 부분을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시의 책(『사람풍경』)이 마음의 상처를 주로 다루는 책이어서 사람들이 좀더 쉽게 마음을 풀어놓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내외 ‘한 책’ 운동에서는 토론도움자료 제작진이 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체 토론을 통하여 사람들의 토론을 촉발하기 위한 질문들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실제 토론에 들어가서는 선정된 도서의 성격, 그 해 당해 도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이슈 등에 따라 유연하게 토론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도 올해에는 준비과정을 거쳐 토론도움자료가 공공도서관 사서들과 원북원부산 코디네이터의 공동작업으로 생산되었다. 2008년도 토론도움자료의 장점은 무엇보다 “원북을 읽고 어떻게 토론할까?”, “원북을 읽고 어떤 토론을 할까?”라는 코너를 제공한 점이다.<sup>27)</sup> 이것은 ‘한 책’ 운동의 주요 목표인 도발적 토론의 진작에 한 걸음 접근한 모습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시민독

26) 조미아, 전계논문, p.112.

27) 2008년도 『원북원부산 토론도움자료(Discussion Toolbox)』는 9월 현재 원북원부산 커뮤니티(<http://cafe.daum.net/onebookbusan>)에 소개되어 있으며, 선상문학체험 행사 등 각종 원북원부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서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의 콘텐츠(내용) 속으로 들어가 자체적으로 토론을 벌이고 공공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독서흥미를 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부산의 ‘한 책’ 운동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또한 매년 ‘한 책’ 운동에서 작가의 협력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수년간 원북원부산운동을 운영해본 결과 유명 작가의 베스트셀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작가의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협력을 얻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작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공개된 작가의 말이나 활동 등을 소개하기도 하고 원북원부산운동의 사이트를 통하여 작가와 시민과의 사이버토론을 유도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시민들의 자조한 참여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법, 작가초청을 지역 내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협력하여 추진하는 방법, 굳이 작가가 아니더라도 작가와 관련된 인물, 지식인, 독자 등의 참여로 토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토론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음을 생각할 때, 토론에 대한 시민들의 학습과 토론인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토론의 개념과 방식에 대한 강연회를 ‘한 책’ 프로그램의 일부로 개최하고 사서 및 독서회원 중에서 희망자를 토론인도자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윤정옥은 “(‘한 책’ 운동의) 각 동아리(독서회) 안에서 누구든지 토론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의 인도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참여자 각 사람이 인도자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동아리를 구성하고 인도하며, 토론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28)</sup>라고 말한다.

그리고 토론을 위한 공간으로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점, 카페, 교실, 주민자치센터 등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시카고의 경우 커피점 스타벅스가 시민들에게 토론공간과 음료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도서관은 물론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토론이 펼쳐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공간에서 참여자에게 토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과 ‘한 책’운동의 연계

북미에서 ‘한 책’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한 가지는 지역의 개인, 단체, 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한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현재까지 원북원부산운동은 관에서 계몽적 차원에서 주도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국내의 여타 도시들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윤정옥은 “지역사회에서 독서, 교육 및 문화관련 부문의 외부, 예를 들어, 경제계라든지 법조계, 병원, 극장, 박물관, 미술관, 각종 민간단체, 지역유지와 명사 등이 ‘한 책’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28) 윤정옥(2008), 전개논문, p.75.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부문이 참여하면서 재정적 지원, 예술적 후원, 물리적 시설 및 편의제공 등 여러 형태의 협력과 후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일 뿐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sup>29)</sup>

나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책’ 운동의 일상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에 기반한 다양한 ‘한 책’ 프로그램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한 책’ 운동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도이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의 공공도서관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각자의 거주지에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도서관의 수가 많고 공공도서관의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작은도서관은 ‘작은 공공도서관’이다. 즉, 지역사회에서 구축된 전체 공공도서관 인프라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1개의 지역중심관과 복수의 지역도서관(분관, 분실), 자동차도서관으로 이루어진다. 덴마크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무료 공공도서관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은 도서관법령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1주일에 4일 개관되며 3명 정도의 사서가 근무하는데 이들은 시립도서관에서 파견된 사서들이다.<sup>30)</sup>

국내의 경우 작은도서관들이 지난 수십년 간 민간에서 형성된 사립 문고 및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과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새마을문고, 주민자치센터 문고 등을 아우르는데, 그 동안 공공도서관과는 별개로 존재하거나 활동하여 왔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이 다양하게 또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로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책’ 운동은 이러한 난관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독서프로그램이다. 말 그대로 한 도시에서 한 책을 정하여 도시 전역에서 사람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즐기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서로 협의하여 ‘한 책’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강화, 상호대차 프로그램 추진, ‘한 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전개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및 공동추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토론도움자료의 온·오프라인 공유, 공공도서관의 독서회와 작은도서관의 독서회의 연합독서토론회 개최 등이 시도되어야 한다.

부산의 경우, 2008년 현재 작은도서관의 일종인 찜지도서관 25개점이 시내 공공기관, 사회단체, 주민자치센터, 민간도서관 등에 설치되거나 지정되어 있으며, 교육청은 도서관별 장서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찜지도서관들의 업무협의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작

29) 상계논문, p.77.

30)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용재 등, 작은도서관 선진형 모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07), pp.21-26을 참조하십시오.

은도서관들이 ‘한 책’ 운동과 관련하여 서로 연계하고 나아가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러한 방향과 전략은 ‘한 책’ 운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지역기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계

‘한 책’ 운동에서 지역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은 중요하고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한 책’ 운동은 지역의 잠재적·현재적 이슈에 대하여 하나의 책을 두고 토론하고 성찰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연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북원부산운동의 경우, 우선 기존에 부산에서 펼쳐지는 부산국제영화제, 바다축제, 자갈치축제, 동래읍성축제, 달맞이고개 철학축제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산의 전통적 해양문화, 새로운 영상문화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역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가 선정되어 이 지역에서의 이주민의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다룬 사례, 국내의 경우 순천에서 지역출신 정채봉 작가의 작품 『스무살 어머니』가 선정된 사례와 포항의 경우 해양성을 반영하여 『귀신고래』가 선정된 사례 등이 지역기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한 책’ 운동에서 지역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기반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역사회에서 깊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지역의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미국 시카고(2001년 선정도서 『앵무새죽이기』)나 우리나라 청주(2006년 선정도서 『압록강은 흐른다』)에서처럼, 작가가 칩거, 별세 등의 이유로 초청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 V. 나오며

이상에서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서 지난 수년간 추진되고 전개된 ‘한 책’ 운동의 정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원북원부산운동을 주된 사례로 하여 살펴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나는 지난 4년간 원북원부산운동의 추진에 직접 관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관찰을 하였으며, 동시에 전국의 ‘한 책’ 운동을 추진하는 도시들 중 일부 도시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의 여러 행사 및 토론회에서 타 도시의 ‘한 책’ 운동 추진인력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미 공공도서관의 마케팅전략으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한 책’ 운동이 국내에서 성공리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실험되었기에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한 책’ 운동의 발전방안이 각 도시에서 또한 한국 공공도서관계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까지처럼 학술적, 실무적 연구물이 앞으로 계속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 책’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운동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조직의 창의적인 기획, 선정과정에서의 민주성 확보 및 선정과정 자체가 토론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 토론도움자료의 제작 및 토론꺼리(질문)의 제공, 신구세대에게 각각 매력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sup>31)</sup>, 도서관 공간 및 네트워크를 통한 일상적 홍보, 시민단체·문화단체·언론사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 증진 등이 충분히 고려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 토론도움자료(툭박스, 워크북)의 제작방법, ‘한 책’의 선정,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연계와 운영, ‘한 책’ 토론의 이론과 실제, ‘한 책’ 운동의 홍보(마케팅) 등 우리 사회에서 ‘한 책’ 운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실재적인 연구들이 요망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31) 예컨대, 마케팅에서의 고객세분화전략처럼 신세대 대상으로는 ‘한 책’과 관련하여 UCC 공모전, 디카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기성세대 대상으로는 편지쓰기, 낭송회, 연극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